

2018 인문과학대학 우수논문 공모전

대중음악 가사에 나타난 여성
은유 표현 연구

최우승

국어국문학과 1601126

국어국문학과 1601454

목차

I. 서론

II. 본론 : 대중음악 가사에 나타난 여성 은유 표현 연구

1. 사물화 은유

- 1) 동사
- 2) 형용사
- 3) 명사

2. 동물화 은유

- 1) 동사
- 2) 형용사
- 3) 명사

3. 식물화 은유

- 1) 동사
- 2) 형용사
- 3) 명사

4. 음식물 은유

- 1) 동사
- 2) 형용사
- 3) 명사

5. 기타 은유

III. 결론

I. 서론

국내의 여성 대상어 연구는 1960년대 후반 여성을 지칭하는 어휘를 연구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여성어 연구의 시초가 된 유창돈(1966)과 서정범(1969)은 남성 지칭어의 함의가 중립적인데 반해 여성 지칭어는 부정적인 뜻을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령 '사내', '남편'이 현재에까지 의미 변화 없이 쓰이는데 비해 '계집', '녀편'은 과거 부정적 함의를 가지다가 비어로 차동어화 되었다. 또한 의사, 교수, 변호사, 사장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들은 모두 남성 무표어인 반면 가정부, 산파 등은 여성 명사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1995년 구현식, 민현식으로 이어져 여기서 종합적으로 다뤄지며 여성 대상어의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¹⁾

한편 한국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는 여성을 묘사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통해 주로 다루어진다. 대상에 대한 표현은 대상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김진우(1985)는 '노총각이라는 단어에는 아무런 부정적인 뜻이 없는데, 노처녀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붙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태도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똑같은 기질이나 성품이 그 소유주의 성(性)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그리하여 남자는 진취적인데, 여자는 윤리관이 허술하고...(중략)... 남자는 우물 안의 개구리를 벗어나 세계인이 되어야 하지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임홍빈(1993/1995)에서는 여성의 신체 부분, 성품, 움직임, 행동 등에 관련된 형용사, 동사의 수가 남성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며 여성의 외모와 성품, 행동에 가해지는 제약이 많다고 주장한다.

여성 대상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을 때 기존 연구에서는 '계집', '할망구', '아줌마', '과부'처럼 여성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어휘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혹은 '칭순하다' '아름답다' '괴팍하다' '결혼하다' '눈을 흘기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여성을 묘사하는 동사 및 형용사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논의가 진행되는 2018년은 여성어 연구가 처음 시작되어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196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와는 다소 다른 사회적 분위기이다. 가령 과거에는 성차별에 대한 의식이 미미하였다면 현재에는 여성 차별에 대한 의식이 과거에 비해서 다소 퍼져있는 상태이다. 의식의 변화와 비교하였을 때 언어의 변화는 굉장히 보수적인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1990년대에 비해 남성 무표어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계집', '녀편'과 같이 여성칭 비속어들이 상당 부분 차동화 되었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여성 대상어 중 직접 표현보다는 은유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즉 인지 언어학적 은유, 즉 '삶으로서의 은유' (Lakoff & Johnson, 1980)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에 대한 사회의 심층적 인식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통적 은유가 비교되고 동일시되는 두 개체 사이의 객관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수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본고에서 차용한 인지 언어학적 은유는 비교 대상의 객관적인 유사성보다는 발화자와 청자에 의해 지각되는 구조적 유사성에 기초한다. 다시 말해 은유는 인간의 인지 방식의 하나이며, 일상 언어가 은유적이기 때문에 이 은유 속에 삶의 방식과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²⁾

한편 여성 은유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을 때는 대부분 속담을 제재로 연구를 진행

1) 박창원, 김창섭, 전해영, 차현실(1999), 「언어와 여성의 사회적 위치」, 태학사, 61쪽.

2) 전해영(1997), 「여성 관련 은유 표현에 대한 연구」, 『이화어문논집』 제15권, 이화어문학회, 484-485쪽.

하였다. 가령 이윤환(1963)은 여성 속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가정 내에 한정된 인물들이며 대인관계도 주로 가정 내에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여성 속담의 내용이 생활의 지혜와 생활 규범, 생활 윤리에 관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³⁾ 김종택(1978)에서는 여성 속담을 통하여 일반 여성과 시어머니, 며느리, 딸의 위치를 밝혔다는 점에서 전통 사회에 초점을 두고 있다.⁴⁾ 또한 강주현(1995)에서는 한국어의 속담과 민요를 통해 성차를 밝히고 있다. 본고는 속담이 현대에도 통용되는 일상 은유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 제재라는 점을 인지하나 전통 사회를 기반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현대에 적용될 때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한계 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⁵⁾ 그러므로 최근 관습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 대중가요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최근 경향의 여성 은유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최신 경향인 것과 더불어 한국 대중가요의 파급력은 타 대중 매체 장르에 비해 매우 높다. 2010년, 국내 스마트폰의 보급과 데이터 요금의 대폭 하락으로 대중음악의 유통이 음반에서 모바일 음원으로 그 형태를 바꾸기 시작하였다. 이전 세대에는 음원을 다운로드해서 파일을 직접 구매하는 '소유'의 형태로 음악을 소비했다면 현 세대에서는 모바일 음원을 즉석에서 골라 스트리밍을 하는 '재생'의 형식이다. 따라서 유통 구조가 변화한 이후로는 음악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대중음악의 접근성은 굉장히 상승하였다. 음원 스트리밍을 통해 대중들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즉각적으로 선호하는 음악을 재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실시간 차트의 영향력은 높아진 것이다. 이렇듯 최신 가요는 바야흐로 대중들의 일상에 침투하여 일상 그 자체가 되었고 사회의 관습과 인식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중가요를 연구 제재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

최신 동향에 집중하기 위해 대중가요를 선택한 만큼 본고는 2010년 1월 1일부터 발매된 노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때 대부분의 한국 가요에서 사랑의 전제는 이성애인 것을 착안하여⁶⁾ 여성 화자가 연인을 향해 부르는 노래는 그 대상이 남성인 것으로, 남성 화자가 연인을 향해 부르는 노래는 그 대상이 여성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여성이 은유되는 대상에 따라서 사물화, 동물화, 식물화, 음식물화로 양상을 나누는 뒤 여성을 각각 사물, 동물, 식물, 음식물로 귀결시키는 요소들을 품사에 따라 동사, 형용사, 명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발화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화자가 은유하는 여성, 여성 화자가 은유하는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2010년대 여성 은유가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본 후 이를 확장하여 여성의 성적 대상화, 사회적 지위 등 성차별의 요소를 논의해 볼 예정이다.

3) 앞의 책, 115쪽.

4) 김종택(1978), 「한국인의 전통적인 여성관 - 속언, 속담을 통하여」, 『여성문제연구』, 제7권,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 연구소, 196쪽.

5) 강주현(1995), 「제집팔자 상팔자 : 우리말에 나타난 성차별 구조」, 서울: 고려원, 127쪽.

6) 한국 대중가요에서 여성 가수가 연인을 칭할 때 '오빠', '남자친구' 등 남성을 일컫는 어휘를 사용하고 남성 가수의 경우에는 '여자친구', '여자'를 사용한다. 또한 듀엣곡의 경우 모두 남성과 여성이 합을 맞추어 사랑 노래를 부르는데, 남성-남성, 여성-여성, 여성-남성이 함께 사랑 노래를 부르는 듀엣곡은 찾아볼 수 없다.

II. 본론

1. 사물화 은유

여성을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지언어학적 은유는 여성을 사물에 빗대는 표현법이다. 이는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여겼던 오랜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소유 주체는 주로 남성으로, 이는 가부장제도 아래 남성에게 여성을 종속시키는 결혼 인습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오늘날 “여자를 사들이다”, “술상과 여자를 준비해두라”와 같은 직접적인 사물 은유를 이용하는 경우는 현저히 줄었다. 하지만 최근 대중음악 가사의 경향을 볼 때 여전히 남성은 여성을 소유하는 주체,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는 대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빈번히 등장한다. 이를 통해 여성을 남성의 부속품으로 바라보는 뿌리 깊은 가부장적 인식이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동사

	여성 화자	남성 화자
가지다	<p>“모든 남자들이 날 매일 check out 대부분이 날 <u>가질 수 있다</u> 착각” (블랙핑크 - 휘파람)</p> <p>“너의 끼로 잡아봐 나의 맘을 <u>가져봐</u>” (AOA - 방글방글)</p> <p>“네 주윌 마구 땀들려 해, 더 가까워지면 니가 <u>가져줄래</u>” (블랙핑크 사춘기 - 우주를 즐겨)</p> <p>“내송떨지 말고 나를 <u>가져봐</u>” (마마무 - Mr. 에메모호)</p>	<p>“널 <u>갖고</u> 말 거야 두고 봐” (방탄소년단-상남자)</p> <p>“우아한 프라다 우아한 샤넬 깔끔한 마르지엘라 같은 너에 반해 잘하려 했지 허나 자격지심 때문에 너를 못 <u>가져</u>” (창모 - 아름다워)</p> <p>“너는 내 취향저격 난 너를 보면 <u>가지고</u> 싶어서 안달이 나” (아이콘 - 취향저격)</p>
가지고 놀다	<p>“다 <u>가지고</u> 놀고 이제야 실증 났나요 니가 대체 뭔데 날 자꾸 놀려” (AOA - 내 반쪽)</p> <p>“오빠가 뭔데 나를 <u>가지고</u> 놀아” (권진아 - 다 알면서)</p>	<p>“Lady, 나는 널 더 <u>갖고</u> 놀래” (범키 - 갖고놀래)</p>
말기다	<p>“너와 나 입을 맞춰, I feel good. 너에게 나를 <u>말겨</u>” (마마무- 데칼코마니)</p>	<p>“나한테 (너를) <u>말겨</u> 깨끗이 해결 짓고 올게 그땐 말없이 안겨” (지크 - She's a baby)</p> <p>“내게 <u>말겨</u> uh 난 네 감각을 열어 널 내게 <u>말겨</u> uh 나의 눈빛만을 믿어” (빅스 - the closer)</p>
끝다	<p>“나는 함부로 날 안 <u>끝아</u>” (미스에이 - 남자 없이 잘 살아)</p>	
벗었다	<p>“내 마음 <u>벗고</u> 싶다면 색다르게 시작해” (AOA - Good luck)</p>	<p>“너란 끝대 지키는 풀키퍼 딱 남자에게 절대 안 <u>벗겨</u>” (솔탈라세션 - 너 하나면 돼)</p> <p>“그녀의 맘을 <u>벗고</u> 싶는데 너무 어려워 난 방법을 몰라” (샤이니 - Girls Girls Girls)</p> <p>“난 니 고막의 순결을 <u>벗겨</u> 이젠 너를 유혹하는 메시지” (TOP - turn it up)</p> <p>“널 <u>벗기고</u> 싶지 않아 널 더 끌어안아” (이든, 윤하 - Lazy love)</p>

흡치다	<p>"찰나의 순간 내 맘 <u>흡치고</u> 다시 사라진 년 대체 년 누구냐구" (모모랜드 - 콤팩 마)</p> <p>"내 맘을 왜 <u>흡쳤어</u> 오랜 정말 못 됐 어" (걸스데이 - 반짝반짝)</p>	<p>"널 <u>흡치</u> 맘너해 널 망쳐놓을 거야" (엑소 - Monster)</p> <p>"니 입술을 또 <u>흡치고</u> 멀리 달아나버 려" (트리플에이커 - 트리플에이커)</p>
읽다		<p>"그댈 <u>읽지</u> 않도록 가장 빛날 수 있는 그댈 위해" (양요섭 - 벨)</p> <p>"너를 <u>읽고</u> 싶지 않아 beautiful my love" (크러쉬 - Beautiful)</p> <p>"점점 멀어지다 너를 <u>읽고</u> 난 이후로" (나준 - 맛)</p> <p>"내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마 나도 그댈 <u>읽고</u> 싶진 않아" (빅뱅 - 우리 사랑하지 않아요)</p> <p>"Baby 정말이지 너를 <u>읽고</u> 싶지 않아" (김성규 - Sorry)</p>
아끼다	<p>"계발 혼한 여자로 만들진 말아주세요 조금만 날 <u>아껴줘요</u>" (아이유 - 50cm)</p> <p>"날 <u>아껴줘</u> forever ever ever" (제스타 - 바빠)</p> <p>"가슴으로 날 <u>아껴줘</u>" (레이디스 코드 - kiss kiss)</p>	<p>"나 지금 5천만 원짜리 시계 샀지만 나 는 너를 훨씬 <u>아끼지</u> baby" (박재범 - All I Wanna Do)</p> <p>"평생 <u>아끼고</u> 잘 간직해 줄게" (스탠딩 예그 - 니라면 편잖아)</p> <p>"<u>아껴</u> 널 <u>아껴</u> 널 험기중 날 정도로" (세븐틴 - 아킨다)</p> <p>"Just a little bit of you 격하게 <u>아껴</u> baby" (블락비 - HER)</p>
깨지다	<p>"내 맘 잡아줄래 유리처럼 <u>깨지지</u> 않 게" (딘아 - 봐)</p> <p>"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u>깨지진</u> 않을 거야." (여자친구 - 유리구슬)</p>	<p>"멀어져 <u>깨질</u> 듯한 투명한 내게" (사이니 - 산소 같은 너)</p>
데려가다	<p>"지금 너의 곁에 나를 <u>데려가</u>줘" (블랙핑크 - 휘파람)</p> <p>"어서 <u>데려가</u> 나를 좀 놀아줘" (현아 - Babe)</p>	<p>"넘친 오해들이 결국 또 널 <u>데려가고</u> 홀 로 남아 나 홀로 멍이 들어 아파 와" (갯세븐 - Remember you)</p>
뽑다	<p>"pick me pick me pick me up" (아이오아이 - pick me)</p>	

먼저 가장 대표적인 소유동사 '가지다'는 "손이나 몸 따위에 있게 하다"의 의미로, 본래 손에 쥐거나 몸에 지닐 수 없는 인간을 대상으로 쓰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 일반적으로 여성 화자의 경우 "나를 가져봐"의 형태로, 남성 화자의 경우 "너를 가지고 싶어"의 형태로 발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 화자는 마치 물건을 사고 싶어 하듯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여성 화자는 판매대에 놓인 상품이 소비자를 소구하듯 "가져봐"라고 말하는 식이다. 설령 여성을 '유혹'의 주체로는 볼 수 있을지라도 이 역시 결과적으로는 남성 주체에게 종속되기를 원하는 방식이기에 결코 여성이 주체가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가지다' 동사를 활용한 동사구 '가지고 놀다' 는 장난감과 같은 물건에 호응하는 용어이다. 가사에서 여성 화자는 "너는 나를", 남성 화자는 "나는 너를" 가지고 노는 행위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장난감은 여성을, 장난감의 주인은 남성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맡기다' 는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다" 혹은 "물건을 받아 보관하다" 의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즉, 동사 '맡기다' 는 주로 일이나 물건에 대해 호응하는 동사이다. 이때 발화 표현에서 여성 화자는 "너에게 나를" 맡기고 싶다고 말하고, 남성 화자는 "나에게 너를" 맡기라고 요구한다. 설령 '맡기다' 동사로 직접 표현되지 않더라도 남성 화자가 여성 화자를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약속문 또한 가사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를 통해 이성애 관계에서 관계주도권이 당연히 남성에게 귀여졌다고 인식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팔다' 동사의 경우는 남성 화자에 의해 발화되는 경우를 거의 찾기 어려웠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품화된 여성에 대하여 남성이 판매를 요구하기보다 "나는 너를 살 것이다" 는 식의, 구매주체로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훔치다' 와 '빼앗다' 는 "남의 것을 가져가 물래 자신의 것으로 삼다" 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본래 소유한 주체도, 빼앗는 주체도 모두 남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은 그저 남성 주체들에 의해 소유권이 결정지어지는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됨을 알 수 있다. 남성 화자의 입장에서 똑같은 상실의 상황인 '잃다' 는 여성 화자의 입장에서 발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 경우 주체의 의도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끼다' 와 '깨지다' 는 모두 대상인 여성을 귀중품이나 유리 같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물건에 은유하는 표현으로 주로 이용된다. "함께 거느리고 가다" 의 의미를 가지는 '데려가다' 의 경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기도 하나, 이 역시 보통 보호자가 피보호자를 이끌고 가는 경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여성을 주체로 여기지 않는 인식을 반영한다.

동사 '뽑다' 의 경우는 노래 'pick me' 에서 드러나듯 여성을 마치 인형뽑기 기계 속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인형처럼 묘사했다는 점에서 여성 화자의 상품화되고 수동적인 모습을 잘 반영한다.

2) 형용사

	여성 화자	남성 화자
비싸다	"가치를 논하자면 난 Billion dollar baby" (루에니원 - 내가 제일 잘 나가)	" <u>비싼</u> 계집애들 자존심까지 살려줘 올라타 내 위에" (김효은 - World is Mine) "너 빼고 제일 <u>비싼</u> 게 바로 땀인데" (울랄라세션 - 너 하나면 돼)
아깝다		" <u>아까워</u> 발정 남 눈요깃거리로 남기엔" (지코 - 유메카)
투명하다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야." (여자친구 - 유리구슬)	"떨어져 깨질 듯한 <u>투명한</u> 내게" (사이니 - 산소 같은 너)

물화된 여성상을 잘 반영하는 형용사는 대표적으로 '비싸다' 가 있다. 남성 화자가 형용

사 '비싸다' 를 이용할 때는 자신의 소유물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여성에 대해서 이 표현이 쓰인다면 주로 여성의 성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경우이다. '싸다' 로 묘사되었든, '비싸다' 로 묘사되었든, 그 존재를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 그 이상 이하로도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용사 표현은 상당히 여성 비하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아깝다' 역시 해당 여성의 존재가 상품가치 상으로 '비싸다' 는 인식에서 출발한 표현이다.

'투명하다' 의 경우는 구슬이나 보석과 같은 귀중품에 주로 호응하는 형용사로, 앞서 설명된 동사 '깨지다' 와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여성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물건' 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앞선 경우들과 차이가 없다.

3) 명사

	여성 화자	남성 화자
-꺼	"요즘 따라 <u>니꺼</u> 인 듯 <u>니꺼</u> 아닌 <u>니꺼</u> 같은 나" (소유 파트) (소유, 정기고 - 씬)	"요즘 따라 <u>내꺼</u> 인 듯 <u>내꺼</u> 아닌 <u>내꺼</u> 같은 너" (정기고 파트) (소유, 정기고 - 씬) "잠깐 소녀야 지금부터 널 <u>내꺼</u> 라고 부를 거야" (세븐틴 - 만세) " <u>내꺼</u> 하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인피니트 - 내꺼 하자) "너의 이름은 flower <u>내꺼</u> 로 만들 거야" (황치열 - Flower) "틈을 즐기 화장을 지웠어도 <u>내꺼</u> " (인피니트H - 예뻐)
미술품	"난 <u>예술</u> 이야 잘못된 허리에 땀시나는 몸매" (헬로비너스 - 난 예술이야)	"너의 몸매 그런 것만 같아 <u>미술</u> " (박재범 - All I wanna do) "하얀 <u>도화지</u> 바다 그 위 내 물감을 짜지" (프라이어리 - 아끼지마) "넌 <u>한쪽의 명작</u> 난 아낌없는 buyer" (씨이 - Daddy) "Jesus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u>작품</u> 이라고 불러" (블락비 - HER) "너란 <u>작품</u> 에 대해 감상을 해, 너란 존재가 <u>예술</u> 이니까" (방탄소년단 - 하루만)
귀중품		"섹시한 shape의 <u>세단</u> 처럼 눈이 가" (인피니트H - 예뻐) "나 지금 <u>5천만 원짜리 시계</u> 찾지만 나는 너를 훨씬 아끼지 baby" (박재범 - All I Wanna Do)
신발	"난 아직도 쓸 만한데 너는 왜 <u>날</u> <u>신</u> <u>짝</u> 보듯이 해 Hey" (붉은 치마 - AOA)	
인형	"난 그대의 <u>인형</u> , 여전히 그대를 기다려, 방 한 편의 <u>인형</u> , 가만히 그대를 기	"내 <u>인형</u> 이 되어줘 우연히 만나 내 <u>인형</u> 이 되어줘 너는 내 gracia"

	다려” (리블리즈 - 인형)	(기리보이 - 바보상자스타)
물, 바다		“O A She’ s(Oasis) mine (...) 년 남자들 욕망에 <u>갈증 나게</u> 하면서 어제서 주워 여자들은 <u>물 먹여</u> ” (Crush - Oasis) “하루종일 너란 <u>바닷속</u> 을 향해서 나는 아쿠아맨” (빈지노 - Aqua man)

명사 표현에서 여성이 소유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는 ‘(-의) 것’의 구어형인 ‘~꺼’가 있다. 주로 ‘내꺼’, ‘니꺼’의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이 화자가 될 때는 여성이 스스로를 ‘니꺼’로 칭하고, 남성이 화자가 될 때는 상대 여성을 ‘내꺼’로 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여성 남성 듀엣곡인 ‘뽀’은 똑같이 서로에게 호감을 표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요즘 따라 니꺼인 듯 니꺼 아닌 니꺼 같은 나”, 남성은 “요즘 따라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라고 말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은 스스로를 남성 연인의 소유물, 남성은 스스로를 여성 연인의 주인으로 여기는 인식이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사 영역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예는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를 미술 작품에 빗대는 표현 방식이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남성 화자에 의해 발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주로 여성의 몸매에 대한 표현이었다. 여기서 남성은 명작품과 같은 여성의 몸매를 숭배하듯이 묘사하지만, 이 역시도 남성의 기준에서 아름다운 여성상을 규정짓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남성 주체를 만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여성을 귀중품이나 성수로 비유하는 표현 방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여성이 신발이나 인형과 같은 부속품으로 전락한 경우에서도 남성 주체가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의 여부가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다.

2. 동물화 은유

대중가요에서 동물 은유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은유되는 동물들의 종류는 상당히 다르다. 남성은 진취성, 주체성, 공격성을 상징하는 ‘늑대’로, 여성은 연약하고 지배의 대상이 되는 ‘강아지’ ‘고양이’ ‘양’ 등으로 은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아지’, ‘고양이’, ‘양’과 같은 동물군의 공통점은 사나운 육식동물 혹은 인간에게 길들여지거나 지배당하는 동물이라는 점이다. 대중가요에서 남성이 ‘늑대’, ‘사자’ 등으로 비유된다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여성은 남성으로 상징되는 육식동물의 먹잇감, 사냥감이 되거나 남성들에게 길들여지는 존재인 것이다.

‘강아지’, ‘고양이’, ‘양’은 보통 귀엽고 온순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성이 이들에 비유될 때 표면적으로는 ‘정복 대상’으로서의 면모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르다. 위 동물들은 본질적으로 육식동물과 인간들에게 ‘정복 대상’이라는 점에서 동물화 역시 여성의 수동성, 비주체성을 강조하는 은유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 여성은 ‘뽀’이나 ‘여우’ 등과 같이 간사하고 탐욕스럽고 기회주의적인 부정적 이미지의 동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이는 간사함, 불신, 요

물 등의 부정적 속성 역시 여성의 특성에 해당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보여준다.

1) 동사

	여성 화자	남성 화자
낚다	"같은 옷 밤 샀고 목적은 <u>여자를 낚아</u> 대중 맞춰지는 퍼즐 타임" (수란 - 명명명)	" <u>널 낚아채기</u> 전에 눈빛은 바로 매가 돼." (데이식스 - Hunt)
노리다	" <u>널 노리는</u> 애들이 많아도 재미있는 놀이" (다이아 - LO OK) " <u>널 노리는</u> 남자를 넘쳐나는데 넌 아직도 위기감이 없지" (디아 - 나쁜 여자)	"아무도 널 못 보게 품에 감추고 싶어 <u>널 노리는</u> 시선들 내 안에 일어난 거센 소용돌이" (엑소 - 으르렁) " <u>널 노리는</u> 남자들만 Stop it, Stop it" (빅스 - Stop it girl)
(땃애) 걸리다	"니 <u>땃애 걸린</u> 난 애정결핍 여우" (마마무 - Mr.애매 모호)	"잡아놓은 <u>땃애 걸린</u> 넌 먹이 다 이뤄놓은 칩 하는 애 놀리는 맛 들렸지" (김효은 - new kings)

동사 '낚다'의 사전적 정의는 '낚시로 물고기를 잡다'이다. 그러나 대중가요에서 동사 '낚다'는 물고기와 함께 쓰이기보다 '여성', '여성의 손'과 함께 더 높은 빈도로 쓰인다. 가령 '데이식스'의 'hunt'에서는 남성 화자가 '너(여성)을 낚아챌 때 나(남성)는 매가 된다'고 한다. 이는 성별 동물 은유의 차이와 더불어, 정복 대상으로 은유되는 여성의 면모를 부각한다. 한편 동사 '노리다'는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버르다', '혹은' 무엇을 이루려고 모든 마음을 쏟아서 눈 여겨 보다'의 사전적 정의를 내포하는데, 주로 '우승을 노리다', '기회를 노리다', '재산을 노리다', '고양이가 쥐를 노리다'와 같이 관념적 사물 혹은 동물을 대상으로 쓰이는 동사이다. 여성 화자의 노랫말에서는 주로 나(여성)을 노리는 남자들이 많다는 맥락으로 사용되는 한편 남성 화자의 노랫말에서는 주로 '널(여성)을 노리는 남성들 때문에 화자가 걱정이 된다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낚다'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에게 사냥감으로 인식되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몸집이 작은 동물들에게 쓰이는 동사 '(땃애) 걸리다' 역시 여성과 다양하게 호응하여 여성의 동물화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2) 형용사

	여성 화자	남성 화자
순하다	"그런 나 널 만나 <u>순한</u> 앞이 된 나" (세스타 - Sunshine)	"남잔 늑대 <u>순하다</u> 순한 너에겐 위험해 NO 숨어 있어 내 울타리 안에" (박경 - 자격지심) "이렇게 <u>순한</u> 얼굴로 가끔씩 완전 여우 같이 여우짓해서" (보아, 레드플라운 - 오늘 밤)

'순하다'의 사전적 정의는 '성질이나 태도가 까다롭거나 고집스럽지 않다.' 혹은

'기세가 거칠거나 세지 않다.' 로 사람과 동물의 거세지 않은 성질을 묘사할 때 쓰이는 형용사이다. '순하다' 는 동물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쓰이는 형용사라는 점에서 동물화 은유에 기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중 가요의 가사에서 '순하다' 가 쓰이는 맥락적 상황을 살펴보면 앞뒤로 여성을 동물로 비유한 다른 명사, 동사와 함께 사용된다는 점에서 '순하다' 는 여성의 동물화 비유에 기여하는 형용사로 결론지을 수 있다. 가령 박경의 '자격지심' 에서는 여성을 '순하다' 고 묘사한 뒤 '울타리 안에 숨어있으라' 는 말을 후행시키며 '양' 을 연상시킨다.

3) 명사

	여성 화자	남성 화자
여우	"여우인 척 하는 곰인 척 하는 <u>여우</u> 아니면 아예 다른 거" (아이유 - 스물셋) "홍이 난 <u>여우</u> 그런 나라구" (레드벨벳 - 피카부) "니 멧에 걸린 난 예정결집 <u>여우</u> " (마마무 - 님.에메모호)	"너무도 아름다운 그대의 미소가 가짜는 아닌지 아니면 <u>천사의 탈을 쓴 여우는</u> 아닌지 사실 난 걱정이 돼" (NCT 127 - Angle) "곰인 척하지만 <u>여우인 걸</u> 알지만 넘어가는 걸" (블락비 - Yesterday) "완전 감쪽같이 <u>여우</u> 짓해서 완전 속아" (보아, 데드콜라온 - 오늘 밤)
곰	"겨울잠 자는 <u>곰</u> 처럼 나도 품에 안겨 잠 들고 <u>곰</u> " (마마무 - 불타)	"어떻게 그 예쁜 얼굴을 하고 <u>곰보다 더</u> <u>둔한가요</u> " (비스트 - 미운 사람)
뱀		"왜 내 맘에 <u>뱀</u> 리를 붙었어" (다이내믹 듀오 - BAAAM)
토끼	"처음 느껴보는 설레는 맘 감추지 못한 채 <u>하얀 토끼</u> 처럼 네게 달려가고 있는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너의 눈동자" (프로미스나인 - 나를 따라, 너에게)	"내가 너의 <u>운달</u> 섬은 아닌데 왜 항상 커피 아님 술만 얻어먹고 가냐" (다이내믹 듀오 - BAAAM)
강아지	"지루해 혼자 집 지키는 <u>강아지</u> 마냥 (...) 귀 쫑긋 세우고 있는 것도" (불발간 사춘기 - 상상)	
고양이	"그대는 나만의 늑대 나는 그대의 귀여운 <u>고양이</u> " (AOA - 사랑사뿐) "니 맘을 <u>깨물고</u> 도망칠 거야" (트리플에이커 - 트리플에이커) "너를 보는 내 눈은 <u>고양이</u> " (우주소녀 - Catch Me)	
양	"그런 나 널 만나 <u>순한 양</u> 이 된 나" (세스타 - Sunshine)	
사냥감/먹잇감		" <u>먹잇감</u> 바라보듯이 널 보며 침 흘려" (데이식스 - Hunt)

한편 명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노래 가사도 굉장히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특히 '여

우 '는 동물화 은유의 가장 대표적인 명사로 남성 화자의 노랫말과 여성 화자의 노랫말 둘다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이 때 주목할 만한 것은, '여우'의 부정적 속성을 강조하는 어휘들이 함께 등장하여 여우의 알미운 특성을 부각한다는 점이다. 가령 보아와 메드클라운의 '오늘 밤'에서는 '여우'에 접미사 '-짓'을 결합시켜 여우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낮추어 묘사하였다. 또한 블락비의 'yesterday'에서는 '여우인 걸 알지만 넘어간다'고 말하며 부정적인 면모를 눈 감아준다는 뜻을 전달한다. 이와 반대로 '강아지', '토끼'는 앞뒤로 긍정적 노랫말들이 붙어서 그 사랑스러운 면모를 강조하지만, '너에게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는 나', '귀를 쫓긋 세우며 혼자 집을 지켜' 등과 같이 결국엔 남성 화자에게 의존적인 비인격적 여성의 모습이 드러나며 여성의 비주체성을 부각시킨다.

3. 식물화 은유

여성의 식물화 은유에서 근원 영역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상은 바로 '꽃'이다. 여성어 연구가 시작되던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꽃은 압도적인 빈도수로 여성을 묘사하는데 쓰인다. 여성-꽃 비유는 첫 번째로 여성의 외적 아름다움을 부각한다. 사회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인식되는 꽃을 여성과 동치시킴으로써 여성의 외모를 칭송한다. 그런데 꽃의 아름다움은 길어야 한 철 정도 지속이 된다는 점에서 여성-꽃 비유 역시 여성의 외모를 상품가치로서 드러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령, 대중가요에서는 '꺾인 꽃'과 '진 꽃'의 가치를 매우 낮추어 비추어 '진 꽃'을 가치를 다한 여성으로서 묘사한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아름다움을 내포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면에는 또다시 상품으로서의 비인격적인 모습을 부각한다. 한편 '꽃'은 또한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비주체적 존재이다. 대중가요의 노랫말 속에서 꽃으로서의 여성은 남성 화자에 의해 들리거나, 꺾이거나, 피어난다. 혹은 그 자리에서 존재를 알아봐줄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하여 남성은 능동적인 존재로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다. 즉, 식물화 역시 앞서 나왔던 사물화, 동물화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주체로서의 남성성과 비주체로서의 여성성을 부각하는데 쓰인다.

1) 동사

	여성 화자	남성 화자
꺾다	"이미 꺾은 거잖아 굳이 미안해하지 마" (선미 - 가시나)	"지나가던 길옆에 한 송이의 꽃을 꺾어 그 향기와 색깔에 반한 많은 남자들은 멧갈려하다 앞을 못봐서 자꾸 넘어져" (나플라 - 꽃)
피다	"너는 젖고 나는 쪼어" (선미 - 가시나) "나 말이야 못다 핀 꽃 한 송이야 그런 날 피어낼 sun shine" (가인 - 피어나)	"너는 나의 봄이야 계속 피어나니까 감당 안 돼 어떡해 나 이제부터는 내가 있잖아 안아줄 거야" (JBJ - 꽃이야) "니의 색에 나도 물들어 손이 달아버린 그 순간 네가 내 하루에 피어나" (첼백시 - 花요일)

여성 화자에 의해 드러나는 여성-꽃 비유를 살펴보면 여성은 스스로를 꽃으로 묘사하고 남성 연인에 의해 피어나거나 꺾인다고 말한다. 가령 선미의 '가시나'에서는 남성 연인이 자신을 꺾었다고 말하는 한편 가인의 '피어나'에서는 여성인 자신은 아직 다 피지 못한

꽃이지만 sunshine으로 상징되는 남성 연인에 의해 피어날 것을 암시한다. 남성 화자의 노랫말에서도 '꽃'은 다수 등장하지만 남성을 비유하는데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사랑하는 연인을 '꽃'이라 칭하며 여성 연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피어난다고 설명한다. 즉 남성 화자의 노랫말에서 '꽃'으로 상징되는 여성은 남성의 주체성을 되려 부각시키는 경향성을 보인다.

2) 형용사

	여성 화자	남성 화자
화사하다		<p>"저기 멀리 보이는 <u>화사한</u> 니 모습 <u>웃는다</u> 니가 <u>웃는다</u>" (커피소년 - 웃는다)</p> <p>"세상 다 가진 미소를 짓길 바래 그 어떤 <u>꽃보다 화사해</u>" (우람 - 할장봄)</p>
눈부시다		<p>"아름다워 <u>눈부신</u> Flower 너의 향기로 내 맘을 가꿔 <u>눈부신</u> 너의 이름은 Flower" (황치열 - flower)</p>

꽃의 속성과 관련된 형용사를 여성 외모를 묘사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여성-꽃 비유의 논리를 강화시킨다.

3) 명사

	여성 화자	남성 화자
꽃	<p>"나 말이야 <u>꽃</u> 다 <u>핀</u> <u>꽃</u> 한 <u>송이</u>야" (가인 - 피어나)</p> <p>"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u>뒤뜰에 핀</u> <u>꽃들</u>처럼" (아이유 - 비밀의 화원)</p> <p>"한 송이 <u>꽃</u>을 <u>피우려</u> 작은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을까" (김세정 - 꽃길)</p>	<p>"<u>너</u>라는 <u>꽃</u>이 <u>피</u>었습니다" (세븐틴-만세)</p> <p>"신이 굽게 빛은 한 <u>송이</u>의 <u>flower</u>" (겐타곤-빛나리)</p> <p>"아침 해에 <u>자연스레</u> <u>그</u>을린 <u>틀릴</u>처럼 아주 선명한 your lips" (빈지노 - Nike shoes)</p> <p>"난 예쁜 <u>꽃</u>을 든 남자 모든 이가 사랑할 <u>너</u>란 <u>꽃</u>을 든 남자" (빅뱅 - Bae Bae)</p> <p>"<u>그대</u>라는 <u>꽃</u>이 예쁜 color를 <u>붓</u>지" (빅뱅 - Girlfriend)</p> <p>"난 <u>호랑나비</u> <u>꽃</u>을 못 지나쳐" (보이비 - 호랑나비)</p>

명사로써 드러나는 여성의 식물화 역시 위의 양상과 비슷하다. '꽃'은 여성 화자와 남성 화자 구분 없이 대중가요의 노랫말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소재이지만 예외 없이 오직 여성을 묘사하는데 쓰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4. 음식물 은유

여성에 대한 인지은유학적 표현법의 마지막 분류로는 여성을 음식물에 빗대는 방식이 있다. 이는 사물, 동식물 은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여성이 남성에 의해 단순히 소유되거나 대상화되는 차원을 넘어서, 여성이 남성에 의해 '먹히는' 존재, 그 무엇보다도 가장 잉여적인 존재로 전락된 경우이다. 더불어 '먹다'는 비속어로 남녀 간의 성관계를 은유하기도 하는데, 주로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과의 관계 맺음을 가리킬 때 쓰이는 표현이다. 이에 따라 대중음악 가사 속 '먹다'의 은유는 여성 화자보다 남성 화자에 의해 표현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동사

	여성 화자	남성 화자
맛보다		“ <u>물고 뜯고 맛보고 즐겨 악 질러대</u> ” (크리쉬 - Oasis) “ <u>난 너를 맛보고 너를 마신다</u> ” (엑소 - 중독) “ <u>톡하며 터지는 탄산 맛보고 싶어 새까만 네 맘을 난 알고 싶어</u> ” (MC 스나이퍼 - 플라방) “ <u>목 타오르는 다 적셔오는 맛보고 싶은 그대야</u> ” (슈퍼주니어 - Devil)
마시다		“ <u>난 너를 맛보고 너를 마신다</u> ” (엑소 - 중독)
들이키다		“ <u>위해도 돼 이제 널 <u>들이켜</u> 목 깊숙이 너란 위스키</u> ” (방탄소년단 - 피 땀 눈물) “ <u>모든 걸 걸고 널 <u>들이킨</u> 나</u> ” (엑소 - 중독)
삼키다		“ <u>I'm creeping in your heart babe 뒤집고 무너트리고 <u>삼켜</u></u> ” (엑소 - Monster)

일상적으로 여성을 음식물에 비유할 때 '먹다' 동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비속어적 성격이 강해 대중음악 가사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그 표현을 완화한 동사 '맛보다'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었다. 더불어 동사 '마시다', '들이키다' 등으로 여성을 액체에 은유한 경우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여성을 물과 같이 연약하고 유동적인 존재로 여기는 인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액체'가 매개가 되는 성관계의 상황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동사 '삼키다'의 표현은 앞서 언급된 동물화 은유에서 여성을 사냥감으로 여기는 인식의 연장선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형용사

	여성 화자	남성 화자
맛있다	“ <u>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What 빨간 건 현아 현아는 Yeah(맛있어)</u> ” (현아 - 빨개요)	“ <u>그녀의 입술은 <u>맛있어</u> 입술은 <u>맛있어</u>”</u> (2PM - 10점 만점에 10점)

달콤하다	"난 단지 한순간 <u>달콤함</u> 이 아니라 나는 너의 무의식을 파고드는 그런 <u>맛</u> " (7 go up · Yum Yum)	"더는 도망갈 수조차 없어 니가 너무 <u>달콤해</u> 너무 <u>달콤해</u> 너무 <u>달콤해서</u> " (방탄소년단 - 피 땀 눈물)
------	---	--

음식물 은유에서 나타난 형용사는 음식으로 표현된 여성의 맛, 즉 성적 매력에 관련된 표현들이다. 대표적으로 형용사 '맛있다'를 들 수 있다. 현아의 '빨개요'는 동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를 패러디한 음악으로, 원곡에서 '맛있어'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감탄사로 대신함으로써 여성의 몸에 대한 에로틱한 상상력을 극대화시킨다. 한편 남성 화자의 입장에서는 먹는 주체가 남성, 먹히는 대상이 여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남성 화자는 여성의 성적 매력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에 따라 대상의 '맛'을 평가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형용사 '달콤하다' 역시 여성을 '먹기 좋은 존재', 즉 성적으로 만족시킬 만한 존재로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명사

	여성 화자	남성 화자
과일		" <u>맛이</u> <u>궁금해</u> <u>탐스러운</u> <u>자연산</u> <u>복숭아</u> (...) <u>골반이</u> <u>수입산</u> <u>더우면</u> <u>좀</u> <u>더</u> <u>벗어</u> " 【박계범 · 몸매】 "잘록한 허리 밑에 잘 익은 <u>peach</u> (...) 우아해, 우아해, 넌 나의 <u>peach</u> " (레디 · Peach) "못 먹는 <u>갈</u> 못 먹는 <u>갈</u> 강 그림에 그림에 <u>떡떡</u> " (산이, 매드클라운 · 못 먹는 갈)
술		" <u>위해도</u> <u>돼</u> <u>이제</u> <u>널</u> <u>들이켜</u> <u>목</u> <u>깊숙이</u> <u>너란</u> <u>위스키</u> " (방탄소년단 - 피 땀 눈물)
케이크		"넌 항상 너무 아름다워 한 입에 먹고 싶은 <u>케이크</u> 만큼" (40 · 풀)

여성을 은유하는 음식물 명사의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과일, 술, 케이크 등이 있었다.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축제에 어울리는 음식들이라는 점에서, 여성을 보기 좋은 장식품이자 남성을 기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다. 특히 '과일'은 신선하면서도 잘 익을수록 상품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어리고 섹시한' 여성을 요구하는 남성 중심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5. 기타 은유

	여성 화자	남성 화자
아기	"내 모습이 <u>Babe</u> 네 앞에선 <u>Babe</u> (...)"	"She's a <u>baby</u> 알고 보면 <u>애기</u> 혼자 두

	이건 어리광이 맞아 예뻐해 줘" (현아 - Babe) "I'm a baby face 자고 일어났는데 다 예쁘다고 하네" (우주소녀 - Babyface)	면 큰일 나요" (지코 - She's a baby)
천사	"너의 품에 잠든 난 마치 천사가 된 것만 같아요" (불발간 사춘기 - 우주를 즐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자꾸 말하지 마요 속도 모르면서" (에이핑크 - 천사가 아냐)	"사람이야 천사야 oh jesus babe" (빅뱅 - Bae Bae) "나만의 천사 너와 함께면 날아갈 수 있어" (엑소 - heaven) "오 나의 여신 You are my angel" (정세운 - 오! 나의 여신)
여신	"I'm your Venus 겔로 핫한 나를 믿고" (헬로비너스 - Venus)	"넌 아름다워 나의 Goddess" (엑소 - Monster) "오 나의 여신 You are my angel" (정세운 - 오! 나의 여신) "이미 훌륭했지만 이렇게 여신이 될 줄이야" (박보람 - 예뻐졌다)
노예		"노예처럼 아무 말 하지 말고 대답해 들 중 No Yeah" (산이 - Body Language)

사물, 동식물, 음식물 이외에도 여성은 아기, 천사, 여신, 노예 등으로 비유된다. 이들은 인격체라는 점에서 사물, 동식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체성을 가지는 존재들이지만 남성이란 절대 주체에 앞에서 여전히 연약할 뿐더러 부각되는 특성들이 비주체적이라는 점에서는 앞서 살펴본 양상들과 실태가 비슷하다.

예를 들어 현아의 'babe'에서는 여성 화자가 자신은 아기이니 예뻐해 달라고 말하는 한편 지코의 'She's a baby'에서는 남성 화자가 여성을 아기라고 칭하고 혼자 두면 큰일 난다고 노래한다. 여성-아기 비유는 여성의 나약함을 강조하며 남성에게 종속되는 여성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한편 '천사', '여신' 비유는 여성에게 강요되는 자질들을 부각시킨다.

'늘 그림자처럼 늘 네 편을 들던 숨어있는 나' '착하기만 한 날 왜 울리나요' 라고 노래하는 에이핑크의 '천사가 아냐'로 미루어 볼 때 '천사'는 여성의 착하고 헌신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빅뱅의 'bae bae'에서 또한 '사람이야 천사라'라며 여성의 선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에이핑크와 빅뱅의 사례는 여성의 자질이 선하며 착하고 헌신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잘 드러내 보이는 예이다.

한편 여신 은유는, 여성의 외모를 지나치게 추앙하고 찬양하는 표현이지만 이 역시도 여성성을 상품가치로 환산하는 사고방식을 드러낸다. 단적인 예로 박보람의 '예뻐졌다'에서 남성 화자는 여성에게 '원래도 훌륭했지만 이렇게 여신이 될 줄이야'라고 말하는데 '훌륭하다'는 표현과 '여신'이 등치되어 여신 역시 하나의 평가 방식으로 쓰이는 것을 드러낸다.

정리하자면, 여성이 인간으로 은유되는 경우에도, 아기, 천사, 여신, 노예 등의 타자성을 주로 부각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러한 은유들도 '여성은 비인격적이다'는 인식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III. 결론

인지언어학적 은유는 단순 언어미학적 차원에서 벗어나, 표현법 그 자체로 인간의 오랜 사고방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본고는 여성어 연구에 인지언어학적 은유의 이해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시작되었다. 여성이 동등한 인간 주체라는 인식이 여전히 당연시되지 못하는 오늘날, 인간의 보수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언어'라는 매개가 곧 인간사회를 지배하는 뿌리 깊은 사고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⁷⁾

따라서 본고는 대중음악 속 인지언어학적 은유의 차용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부여되는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인식은 바로 여성은 인격체로서 완전하지 못하고, 비주체적이며, 철저히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관찰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었다. 이는 여성을 남성이 소유한 사물, 동물, 식물, 그리고 음식물로 비유하는 표현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름답고 값비싼 존재로 숭배되든, 가치 없고 수동적인 부속품으로 멸시되든, 여성이 대상화되고 그러한 여성의 가치가 남성 주체의 기준에서 판단된다는 점은 다르지 않았다.

다만 본 연구는 보편적인 성적 고정관념 중 하나인 이성에중심주의적 사고를 기본 전제로 삼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사랑 노래에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혐오적인 비유에는 성적 대상화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멸시의 의도를 담은 표현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고는 여성 대상의 표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똑같은 은유 표현이 남성을 대상으로 쓰었을 때의 차이점은 별도로 연구하지 않았다. 차후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화자의 성별, 대상의 성별 두 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지언어학적 은유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7) 강소영(2010), 「성별 대상어의 의미와 성별 분포와의 상관관계 :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연상어휘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27권, 38-39쪽.

<참고 문헌>

- 박창원, 김창섭, 전해영, 차현실(1999), 『언어와 여성의 사회적 위치』, 태학사.
- 강소영(2010), 「성별 대상어의 의미와 성별 분포와의 상관관계 :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연상어휘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27권.
- 강주현(1995), 「계집팔자 상팔자 : 우리말에 나타난 성차별 구조」, 서울: 고려원.
- 구현정(1995), 「남, 여성형 어휘의 사회언어학적 의미」, 『어문학 연구』, 제3집, 상명여대.
- 김종택(1978), 「한국인의 전통적인 여성관 - 속언, 속담을 통하여」, 『여성문제연구』, 제7권,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 연구소.
- 민현식(1995), 「국어의 여성어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제34권,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 연구소.
- 서정범(1969), 「여성에 관한 명칭고」, 『아세아여성연구』, 제8권,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 연구소.
- 유창돈(1966), 「여성어의 역사적 고찰」, 『아세아여성연구』, 제5권,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 연구소.
- 임홍빈(1993), 「국어와 여성어」,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지성사.
- 전해영(1997), 「여성 관련 은유 표현에 대한 연구」, 『이화어문논집』, 제15권, 이화어문학회.
- 표준국어대사전
- 네이버 뮤직